

장년층 인생2막 지원 '빛고를50+센터' 조성

행안부 일자리지원 공모 선정 내년 상반기 개관 본격 운영 취업·교육·상담 등 창구 역할

광주시가 조기은퇴 및 퇴직 등으로 생애 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빛고를50+센터'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빛고를 50+센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년층 지원 정책의 종합 플랫폼이다. 교육·상담·창업·사무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일, 배움, 여가, 복지, 정보제공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축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10월까지 센터 위치 등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주도형 '빛고를 50+일자리' 신규 추진 등을 위해 총 20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년층 일자리 893개를 신규 발굴·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실무 협의체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

는 등 지원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기존 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장년층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센터 조성을 통해 유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창업을 지원하고 2022년 장년층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시책을 적극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2019 광주 에이스페어' 성료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19 광주 에이스페어'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개막식을 마치고 행사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안전문화체험 3·3·3운동 5개기관·단체 한마당 행사

광주시는 28일 시립미술관 일원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험형 안전문화 3·3·3 운동 실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안전문화 3·3·3 운동 실천 한마당 행사는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으로, 이날 행사에는 대한안전연합,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어린이안전학교, 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등 안전관련 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소화기 사용 체험 ▲매듭법 체험▲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통안전수칙 학습 ▲심폐소생술 체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가상현실(VR)을 통한 안전체험 등 생활 속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요령을 습득할 수 있게 다양성을 높였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28일 가족단위로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광주시가 마련한 '체험형 안전문화 3·3·3 운동 실천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재난 발생시 대응 요령을 배우고 있다.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안전점검 담당자 산재예방 교육

광주시는 지난 27일 시·공공기관, 자치구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안전점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에서 '건설안전과 발주자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시와 공사·공단 및 자치구에서 발주·수행 중인 공사·사업 150여건에 대한 현장밀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김형호 기자 khk@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보류됐던 2개사업 심의 통과

市, 부지확보·설계용역 추진

전남대 대학타운형 사업도 통과

광주시는 제18차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결과, 광주역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변경(안)과 전남대 대학타운형 활성화계획 승인(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4월 8일 개최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 5개 마중물 사업 중 스테이션G 등 3개 핵심 사업은 원안통과 됐으나 문화마당 조성과 푸른이음 공원조성 등 2개 사업은 보류됐다.

광주시는 보류된 2개 사업에 대해 교통정책연구소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보완을 완료해 지난 7월 10일 활성화계획 변

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11월 부시장주재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실국 협업사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광주역 일대 약 50만㎡ 부지에 민간자본 7000억원 등 모두 1조원을 투입해 창업지원시설을 세우고, 기차역과 소광·주거시설 등을 단일 건물에 갖춘 복합시설 건립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역과 인접해 있는 전남대 대학타운형 활성화계획 승인(안)도 광주역사업과 같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마중물사업비 30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학

자산을 활용해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시 북구에서는 10월부터 청년창업교육 및 주민활동 거점공간인 행복어울림센터 부지와 썬지공원, 상생상가 등 물건건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부지확보와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평화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용역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북구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역 도시재생사업과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심의 통과됨에 따라 북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산구, 내년까지 산정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월곡2동 산정근린공원에 내년까지 주민 소통 둘레길을 조성한다.

산정근린공원은 1990년에 만들어져 약 30년 동안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그간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둘레길 조성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한 광산구는, 시 예산을 합하여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책로와 안전난간,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아숲 체험원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공사에 앞서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걷기 편한 도심공원으로 산정근린공원을 새 단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시 체납 상수도요금 25억 정리 나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9월말 현재 2만5719건, 25억82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총 1648건, 18억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에 해당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5개반 107명으로 징수전담단을

꾸려 체납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3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이 끊어질 기본권임을 고려해 정수처분이 아닌 납부 독려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k@

소상공인 지원 나선 북구, 첨단2지구 상가실태조사

광주시 북구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가실태조사는 상권쇠퇴와 공실 증가로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경영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이 지역 총 424개 사업체를 대

상으로 1:1 현장 설문으로 이뤄졌으며 237개의 사업체(55.8%)가 조사에 응답했다.

창업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입지선정'과 '자금조달' 순으로 높았으며, 응답자 중 31.3%는 1년 후 사업전환이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매출감소라고 입을 모았다. 매출감소의 원인은 '상권 쇠퇴' 54.5%, '고객감소' 29.1%, '주차 공간 부족' 5.9% 순으로 응답했고 폐업 후 계획에 대해서는 '타 업종 재창업' 16.5%, '취업' 14.8% 등을 희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특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